

학교정보화 개선비 전액 삭감...광주 미래교육 '올스톱' 위기

시의회, 스마트기기 구입비 등 300억 삭감...이정선 교육감 공약 '중·고생 태블릿PC 보급' 제동

광주 학생들이 AI(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부문에서 타 시도에 비해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학교정보화여건 개선비 302억 7000만원 전액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비 3억원 전액을 각각 삭감했다.

학교정보화여건 개선비에는 학생 스마트기기 구입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6만6800여명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중·고등학생

들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미래교육의 핵심으로 꼽히는 SW·AI 등 컴퓨터 기반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배려다.

학생들의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태블릿PC를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도 가져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이 전액삭감돼 교육정보화 인프라 확충에 제동이 걸렸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이지만, 시의회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타 시도에 비해 태블릿PC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광주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의 태블릿PC 보급률은 37%대로 대전(70%), 대구(65%), 울산(40%) 등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정부의 디지털 교육강화 방침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는 최근 초등학교 정보선택과목 도입, 중·고교 개설과목 확대, 초·중학교 코딩교육 필수

화를 통해 정보교육 수업시수도 늘리기로 했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는 정보수업을 34시간 이상(현행 17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이상(현행 34시간) 편성하게 된다.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체험·탐구 중심의 코딩교육을 초·중학교에서 필수화하고 유아 교육과정 운영 시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초·중등 SW·AI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래 교육인프라 구축은 교육은 물론 시대적 과제"라면서 "학교정보화 사업과 관련, 구체적인 학교 교육 활용 방안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의회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학교급식비 지원 추경 예산을 예초 시 교육청이 편성한 28억여원보다 25억여원을 늘린 54억여원으로 조정했다. 이어 교육과정운영여건 개선비도 26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비 1600만~3200만원, 사립유치원 지원비 2억9000만~5억8000만원,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비 4000만~1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은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나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삭감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소통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드론 공격 대응 을지연습 24일 오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2022년도 을지연습 청사 침투 및 드론공격대비 대응 훈련에서 청사 내부로 침입한 적을 진압하기 위해 군 특임대원들이 외벽을 타고 건물을 내려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전통마을, 친환경 테마마을로 조성

전문가 간담회 통해 주민 참여 확대, 마을 경관 조성 등 의견 수렴 울포마을 방파제·보성 영천 녹차 가로수길·곡성 유평마을 박물관

전남도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잊혀져 가는 전통마을의 문화와 자연을 친환경적 테마마을로 조성한다.

전남도가 마을의 자연자원을 관리·보존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정신을 회복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주민 참여 확대 및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3000개 단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마을당 매년 300만원씩 3년간 총 900만원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270억원(도비 108억원, 시군비 162억원)이다.

울 상반기 완도 울포마을은 방파제 쉼터 및 야간조명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 호평을 얻고 있다.

또 보성 영천마을은 특산품을 활용한 녹차 가로수길을 조성해 마을 자긍심을 높였다. 곡성 유평마을은 버려졌던 옛날 물건을 모아 마을 박물관을

조성, 마을 역사를 담아냈다. 해남 신평마을은 화반마다 이름표를 붙인 장미 거리를 조성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마을축제를 여는 등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우수 사례 확산 및 주민 참여 증대를 위해 최근 분야별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 으뜸마을이 나아갈 방향,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 주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마을경관, 마을관광 분야 전문가인 으뜸마을 평가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회의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생활의제를 찾음으로써 주민자치의 경험을 쌓는 소중한 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으뜸마을 사업이 마을 자치를 실현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의의 토대가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령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마을은 자생단체, 인

근마을, 기업체,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민간에서도 지역소멸 예방을 위해 마을 이야기를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을경관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도 제시됐다. 마을의 잠재된 문화적 요소와 경관자원을 이야기로 구현해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구성하는 의견이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마을관광코스, 자연경관형 역사문화형 둘레길, 주민 가이드 마을투어 등을 사례로 꼽았다.

김규용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토대로 추진되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이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도민 참여 확대 및 사업 완성도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와 마을자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오는 9월 시·군 담당자 및 마을대표 대상 워크숍을 하고, 10월까지 우수 사례지를 평가한 후 11월 종합평가를 토대로 우수 6개 시·군 및 50개 으뜸마을을 선정한다. 이후 12월 시상과 함께 성과나눔대회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美 샌안토니오시, 첨단산업 협력 약속

자매결연 40주년 맞아 화상회의

자매결연 도시인 광주시와 미국 샌안토니오의 시장이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시청에서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 시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도시는 올해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다.

강 시장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와 공공예술 선도도시 샌안토니오가 문화와 예술을 뛰어넘어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교류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도시 광주와 사이버보안 대표 도시 샌안토니오가 함께 첨단 산업 파트너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는 다음 달 열리는 샌안토니오

오 세계유산축제의 메인 주제가 광주인 만큼 샌안토니오에서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시립미술관 전시를 열고, 광주 대표 요리사가 현지에서 광주의 맛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특히 내년에는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광주 시립교향악단의 연주 공연과 더불어 두 도시의 교류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지 희망한다"고 밝혔다.

니렌버그 시장은 "자매결연 40주년을 계기로 시민들도 두 도시에 대해 잘 알고 더욱 친밀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